

정상화 골든타임 27일...금호타이어 노사 생존 위한 결단 필요

채권단, 28일 신규자금 투입 여부 등 구조조정안 결정

사측 통상임금 해소 등 자구안 제시...노조와 합의 관건

금호타이어에 대한 채권단 실사보고서가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금호타이어 사측이 통상임금 해소와 임금 피크제 시행 등을 골자로한 자구안을 마련, 노조를 설득하는 등 경영정상화의 길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12일 단체교섭 제36차 본교섭을 통해 노조측에 제시한 자구안을 바탕으로 김종호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직접 노조 집행부와 사원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경영정상화 계획을 밝히는 설명회를 갖는 등 경영정상화에 대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숨기쁘게 움직이고 있다.

◇구조조정 피하고 생존으로 가기 위한 최선의 전략=금호타이어 사측이 고심 끝에 마련한 자구안은 구성원들의 고용보장

과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타이어 업계 평균 영업이익률(12.2%)을 기초로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금액(2922억)을 산정하고 회사의 현실과 경쟁력을 고려해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목표금액 1483억(영업이익률 5.5%)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구성됐다.

이는 P-플랜(Prepackaged plan·사전 회생계획제도)을 포함한 구조조정 절차가 확정되기 전 노사가 경영정상화 계획을 선택하면서 채권단에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매각과 관련 이해관계자인 채권단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한 것이다.

사측이 이처럼 강도 높은 자구안을 마련한 것은 현재의 경영위기가 심각하고 노사가 성실한 자구안 이행에 대한 선제적인

■ 금호타이어 경영 실적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3분기
매출액	40,706	36,985	34,379	30,404	29,472	21,366
영업이익	3,753	3,459	3,584	1,360	1,201	-509
순이익	1,306	1,010	1,316	-675	-379	-599

(단위:억원)

합의를 통해 채권단과 시장에 경영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와 노력을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노사의 경영정상화에 대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면 P-플랜을 비롯한 구조조정은 물론 회사에 대한 청산절차 돌입까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호타이어는 우선 눈 앞까지 닦진 부도와 구조조정을 피하기 위해서 1조3000억원에 달하는 차입금 만기를 연장해야 한다. 또한 연말에 돌아오는 물품대 어음과 급여지급을 위해 비용 절감과 채권단의 신규 자금 지원을 통한 유동성 확보도 시급하다.

하지만 금호타이어가 직면한 커다란 위

기에 비해 금호타이어에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아 시장과 지역경제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금호타이어가 채권단의 구조조정을 피하고 회생하기 위해서는 성실한 자구안 이행에 대한 약속을 바탕으로 채권단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임금 조정과 고등분담에 대한 노조의 반발이 심해 노사 합의를 골든타임 내에 구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골든타임 내 노사가 합의 채권단과 시장에 가능성 보여야=채권단은 현재 진행중인 자율협약 실사를 바탕으로 늦어도 28일에는 채권단협의회를 통해 금호타이어에 대한 신규 자금 투입 여부와 실질적

인 구조조정 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금호타이어 노사는 이 시한 안에 회생의 첫 단추가 되는 노사 동의를 합의하는 게 관건이다. 노사 동의를 함께 채권단이 수용할 수 있는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해야 채권단의 구조조정을 막고 자금 지원을 받아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다.

금호타이어 보다 앞서 산업은행 주도로 경영정상화의 길을 걷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사례를 보더라도 강력한 구조조정을 피하고 생존을 위해서는 자구안에 대한 노사 간의 합의는 필수다.

지난 2014년 5년만에 워크아웃을 졸업했던 경험도 교훈 삼아야 한다. 지난 2010년 워크아웃 돌입과 함께 구조조정을 피하기 위해 당시 자구안 이행에 대한 노사동의를 채권단에 제출하고 임금삭감 및 반납, 동결을 통해 성실하게 이행해 워크아웃을 졸업할 수 있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현재 회사는 적자 구조가 심화, 누적되고 유동성마저 바닥 자력으로는 회생이 어려운 게 사실이다”며 “노사가 경영정상화 계획에 대한 원만한 합의를 통해 채권단과 시장에 경영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채권단의 지원과 협조를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원들에게 임금 조정과 고등분담에 대한 회생 방안을 설명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무척 안타깝지만 회사를 살려내고 모든 구성원들의 고용안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구안에 대한 노사 합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지역경제 단체 한 관계자는 “금호타이어의 정상화는 이해 관계자들의 고등분담이 중요하다”며 “이해당사자들이 고통을 많이 나눌수록 일자리를 지킬 수 있고 구조조정에 얼마나 협조하고 경영정상화에 동참하는지에 달렸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광주은행 적십자 성금 3000만원.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은 지난 13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가 주최하는 사랑의 등불 점화식에 참여해 적십자 성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광주은행 제공>

농촌관광 ‘봄업’

농어촌공, 블로그 기자 초청

평창·강릉 체험마을 취재 지원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정승)는 14일 블로그 기자단과 함께 평창올림픽 성공과 주변 지역 농촌관광 붐업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는 여행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블로그 기자 10여명을 초청해 강원 평창군 ‘소도독농마을’ 등 농촌체험 마을과 강릉 ‘2018평창동계올림픽 홍보체험관’ 취재를 지원했다.

평창군 진부면에 위치한 소도독농마을에서는 산적의 옷을 입고 울막에 들어가 보거나 지역 특산물인 당귀를 활용해 당귀향주머니를 만드는 등 특색 있는 체험 활동으로 진행했다.

기자단은 농촌체험마을과 올림픽홍보관에서 취재한 내용을 블로그에 게재한다. 공사도 관련 콘텐츠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활용해 홍보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강원 평창, 강릉, 정선 등 올림픽 개최지역 주변에는 특색 있는 농촌관광지가 많다”며 “올림픽을 계기로 많은 국민이 농촌마을에서 즐겁고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농촌체험관광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사 SNS와 농촌관광포털 웰촌(www.welchon.com)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69.48 (-11.07) 금리 (국고채 3년) 2.08% (0.00)

↓ 코스닥 770.35 (-1.87) ↓ 환율 (USD) 1089.10원 (-1.60)



편의시설 탁월 ‘남악 센트레빌 리버파크’

상업시설·교육 요충지...동부건설 1258가구 공급

한국토지신탁과 동부건설이 공급하는 ‘남악 센트레빌 리버파크’가 본격 분양에 나서 관심이 뜨겁다.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624번지에 공급되는 남악 센트레빌 리버파크는 지하 1층~지상 12층 30개동 총 1258가구의 대단지로 전용면적은 59~84㎡로 남악 신도시 내 희소성 높은 중소형으로만 조성된다. <투시도>

특히 남악신도시 내에서도 가장 많은 인프라가 밀집돼있는 입지에 자리하게 된다. 롯데마트와 롯데아울렛이 단지 바로 옆에 있으며 중앙시장과 중심상업지구도 가깝다. 또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종합의료시설, 멀티플렉스가 예정되어 있어 문화와 상업시설을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다. 인근에는 옹릉초·중, 남악중·고와 도립도서관이 있으며 대학교부지도 예정되어 있어 교육여건도 좋다. 또 강변 조망권을 확보했으며 단지 앞 남악수변공원, 자전거도로로 쾌적한 주거여건도 확보했다.

특히 남향위주의 설계로 강변 조망권(일부세대)을 확보했으며 실내골프연습장과 사우나, 강변 조망 휘트니스와 옥상 정원 휴게 공간 등 커뮤니티 시설을 구성할 예정이다. 단지 앞 수변공원과 연계해 친환경적인 단지로 꾸며질 계획이다.

입주는 2019년 10월 예정이며 분양 홍보관은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272번지 1층에 위치해 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하도급 갑질’ 광주 건설업체 시정명령

공사비 증액 차단 등 부당 특약...공사 끝난 뒤 대금 미지급

지시에 불응하면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도록 특약을 맺고 하도급대금까지 미지급한 광주의 한 건설업체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 특약 설정, 하도급대금 미지급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주)송원건설에 제발방지와 대금·지연이자 지급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광주시에 기반을 둔 송원건설은 2015년 기준 시공능력평가액 147억6000만원을 기록한 건설업체다.

송원건설은 2015년 3월부터 작년 5월까지 정을 아파트 신축공사에서 금속창호·유리·도장공사를 A사에 위탁하면서 현장 실명서에 부당한 특약사항을 넣었다가 적발됐다. 현장실명서란 공사의 내용을 상세히 기록한 문서를 말한다.

송원건설은 A사가 현장소장 등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임의로 작업하면 어떠한 조치를 해도 민·형사상 이익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문구를 현장실명서에 넣었다.

산재해나 안전관리 비용을 과실 여부

에 상관없이 A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품질관리비용도 떠넘겼으며, 공사비 증액을 원천 차단하는 등 A사에 불리한 내용을 넣어 특약을 맺었다.

송원건설은 공사가 끝난 뒤에도 ‘갑질’을 했다. 시공이 완료됐음에도 25억원 규모의 하도급대금 일부인 2억8000만원과 그 지연이자(연리 15.5%)를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첫 하도급법 위반 행위라는 점 등을 고려해 지침에 따라 과징금이나 고발 처분까지는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대성기자bigkim@

리치공인중개사

부동산 매매

- 곡성군 옥과면 설옥리 593외 6필지
- 펜션, 체험장, 캠핑장, 전원주택, 커피숍, 별장 가능 1,800㎡(5,000평)
- 설산바위와 설산저수지(가운데 토지)
- 대형차량 출입가능, 조망 좋은 남향

● 매매가 8억원

매매

- 광주 남구 주월동 도로점 646㎡(전) 국제양공장 옆, 전망 최고
▶매매가 1억1천만원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쌍옥리 608-12 4개필지, 893㎡(전), 단독주택 가능
전원생활 하실분, 화순CC 옆 바로 앞 물이 흐름
▶매매가 6천만원

부동산 매매

- 함평군 월야면 용월리 산26-1외 2필지
- 전원주택, 편백숲, 택지분양, 체험장 가능 30,000㎡(9,000평)
- 대형차량 출입가능
- 달맞이 공원에서 50m

● 매매가 7억원

주인 직거래 010-4602-9264 / 010-4013-2880